

왜냐하면

그것들이 도덕적 삶의 각각 다른 면을 대변하기 때문이다.
해적이 득실대는 세계 최악의 무법천지 해역을 통과해야 했기 때문이다.
사고파는 행위는 본질적으로 인간소외를 일으킨다는 신념 때문이다.
현재가 과거보다 뭔가 더 특별하다고 믿는 것은 우리 문화에 내재된 몰역사적 자기도취증 때문이다.
선장이 항해에 앞서 포세이돈에게 황소 한 마리를 제물로 바치는 일을 깜빡 잊자 노한 포세이돈이 삼지창으로 폭풍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종이와 연관된 복제 과정은 여전히 제한적이고 비용이 많이 들며 공간과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축적된 것은 앞으로 수집되어야 할 것에 비해 훨씬 더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의심할 것 없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친숙하기 때문이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자신이 아주 위험한 지경에 빠지게 될 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땅은 안정되어 있고 단단하고 고정적인 데 반하여 그 외의 천체들은 매일같이 뜨고 지기를 반복하기 때문이다.
연상과 사색이 그의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아우성댔기 때문이다.
뉴턴의 중력 법칙은 우주 어디에서나 성립하는 범우주적 성격의 보편 법칙이기 때문이다.
언젠가 화성의 지구화가 실현된다면 화성에 영구 정착해서 화성인이 된 인간들이 거대한 운하망을 건설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별들까지의 거리가 워낙 멀기 때문이다.
전혀 새로운 별자리들을 우주선에서 직접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 누구도 빛의 속도로 움직일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핵에는 또 다른 종류의 힘, 즉 핵력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귀보다 눈에 더 많은 대상이 자극을 주기 때문이다.
그들을 한데 묶는 수단이 그들을 갈라놓는 원인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생각을 다른 것으로 바꾸는 까닭에 비로소 우리는 말을 다른 것으로 바꾸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매우 뒤늦게 그들의 역사를 쓰기 시작했고, 5년제도 못으로만 표시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적은 양으로는 발효가 잘 되지 않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런 곳에서는 서로 돕지 않고도 쉽게 살 수 있어서, 사회를 발생시킬 필요가 더 나중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면 모든 종이 생존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정념은 이성에 앞서 말을 하게 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와 같은 효과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스타일이란 형식의 이 기능을 좀더 개별적으로 특화한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어느 쪽이 됐든 그에게 중요했던 문제는 자신이 그 상황을 견딜 수 있는가의 여부였기 때문이다.
고난에 그와 같은 적극적 가치를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곧 해체할 어떤 실체가 있다고 가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아무리 무자비한 가치라 해도, 이는 어떤 가치냐의 문제지, 의지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에게 안성맞춤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미술 또한 노동이며, 엄밀하게는 파업 노동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는 공공 공간으로서의 미술관이라는 질문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영웅보다 픽셀을 더 선호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상품이란 마찬가지로 단순한 객체가 아닌 사회적 힘의 응축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진정성이라는 거짓말>, 247쪽, 앤드류 포터
8쪽
21쪽
22쪽
36쪽
<포스트디지털 프린트>, 38쪽, 알레산드로 루도비코
171쪽
171쪽
<코스모스>, 113쪽, 칼 세이건
119쪽
127쪽
157쪽
273쪽
391쪽
392쪽
401쪽
441쪽
<언어 기원에 관한 시론>, 18쪽, 장 자크 루소
27쪽
31쪽
45쪽
72쪽
75쪽
80쪽
97쪽
98쪽
<해석에 반대한다>, 64쪽, 수전 손택
79쪽
82쪽
163쪽
208쪽
<스크린의 추방자들>, 128쪽, 히토 슈타이얼
128쪽
96쪽
80쪽
75쪽